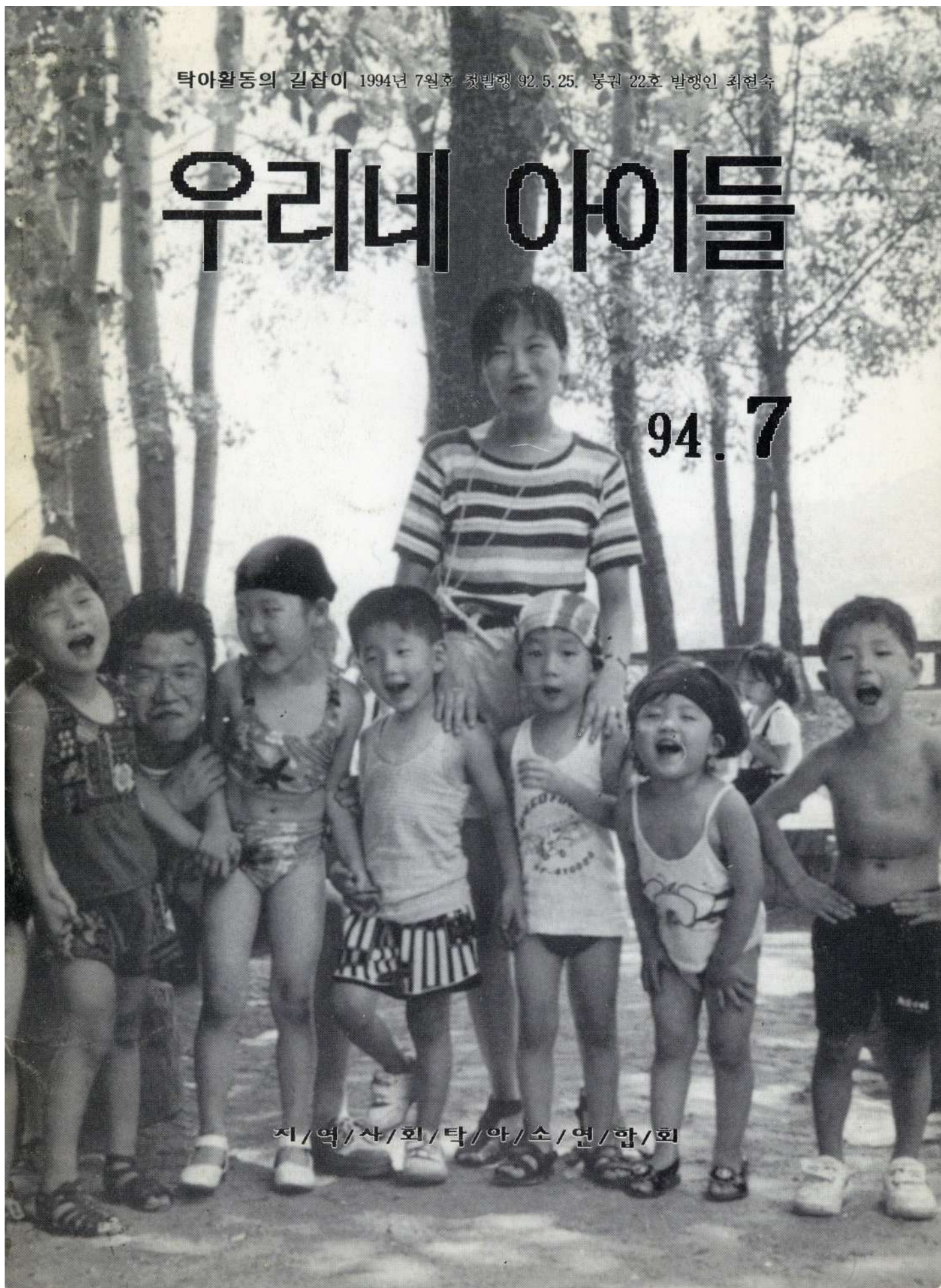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4년 7월호 첫발행 92. 5. 25. 통권 22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4. 7

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

〈통권 22호〉

94.7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9

●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위하여
새날을 여는 사람들

● 좋은 그림책 소개 / 15

● 책집 / 16

● 독서당담기(3)

● 보고 / 20

● 제3회 교육강좌 <신나는 미술활동>

● 우리네 아이들 / 38

● 농촌 아이들

● 시사말쑈이 / 40

● 반세기여 원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일

● 건강하게 살시다 / 42

● 김씨스런 할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 글머리 / 44

● 책이후담기

● 우리들의 목소리

● 책아게 통영 / 46

● 소식과 소식 / 49



〈포지사진 촬영〉

● 매년 가는 캠프이전만
아이들의 웃음은 길수록
커져만 간다.
아이들 속에 숨은
재능과의 모습은
아이들 닮아 보인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클리어 비5우

7.49

우리네 아이들 94.7

<동권 22호>

짜

임

새



<포지사진 설명>

매년 가는 캠프이건만
아이들의 웃음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
아이들 속에 숨은
자활가의 모습도
아이를 닮아 보인다.

■ 일하며 생각하며 / 2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보육사업과 국가

김연명

■ 기획 1 / 4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복지국가의 모순

정책연구부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9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향하여

새땅을 일구는 사람들

주혜민

■ 좋은 그림책 소개 / 15

■ 특집 / 16

독일탐방기(3)

최홍국

■ 보고 / 20

제3회 교육강좌 <신나는 미술활동>

■ 우리네 아이들 / 38

농촌 아이들

이미자

■ 시사말뚫이 / 40

반세기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것발

편집부

■ 건강하게 삽시다 / 42

갑작스런 발열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흥진

■ 글마당 / 44

탁아소별곡

세쌍둥이어린이집

우리들의 목소리

정순옥

■ 탁아계 풍향 / 46

■ 소식과 소식 / 49

■ 편집부에서 / 86

■ 일하며 생각하며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보육사업과 국가

김연명 / 상지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최근 몇년 동안 보육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 보육은 빈민, 여성, 아동교육, 아동복지 등 다양한 문제와 직접적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보육(운동)의 본질적 측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의 보육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보육이 아동복지, 즉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매우 강하게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육이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명문화된 것은 1992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 개정법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호와 복지시설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보육사업이 법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사회복지사업’이 법률적, 행정적 용어로 쓰이면 매우 협소한 의미로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을 제외한 생활보호사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의 영역을 총괄하여 지칭하게 된다). 그리고 93년에 법인만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쳐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규정된 이상, 가정보육시설이나 사업주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없는 종래 규정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 실의 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정, 노동세계, 복지국가 등이 모두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의 계속적인 수행이라는 전제 아래 조직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경제적 구조와 함께 일어난 여성노동 시장에서의 유입이 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모순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육모델을 용해시켜 나아갈 것인가에 있다.”**

어떤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을 받게 되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나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어,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국가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되게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하나가 됨으로써 보육은 국가의 공공사업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육이 국가의 공공사업이 된다는 것은 ‘소박하고 작은 공동체’를 좋아하는 낭만주의자들의 눈에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가가, 특히 별로 민중의 삶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고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챙겨왔던 한국의 국가가 보육사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눈, 혹은 불만의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보육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보육사업이 국가의 책임이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이 된다는 것은 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속에는 국가는 원래 나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국가는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보육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국가를 의도적으로 기피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또한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다. 문제는 국가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육모델을 용해시켜 나아갈 것인가에 있다. 보육사업의 공공적 성격이 더욱 더 확실해지도록 국가와 부딪쳐 국가를 견인해낸다는 다소 거창해보이는 생각이 열악한 현장에서 아동보육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큰 원칙이 될 때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획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복지국가의 모순

- 여성과 국가 중에서 -

정책연구부

* 앤 쏘우스틱 싸쑤 : Kingston Polytechnic의 정치학 전임강사. 저술로는 Gramsci Politic을 저술하였으며 Approach Gramsci편집을 비롯하여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Gramsci에 관한 최근의 저서는 대중과 전문가간 관계에 관한 것이다. 또한 여성에 관한 그녀의 최근 연구는 여성의 사회, 정치적 역할 변화의 정치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자원의 양이나 집단사이의 자원 분배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는 것은 그 위기의 충분한 사회, 정치적 차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그러한 단순화는 경제의 재조직의 중요한 측면이나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점차 사회적 욕구를 감당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국가형태의 위기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 왔지만 여성의 변화된 사회-경제적 역할은 간과되어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싸쑤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나 일상적 경험에 내재된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형태가 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가는 밝힐 수 있다고 말한다.

1. 핵심적 모순

여성노동 참여율의 증가는 지난 1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증가의 중요 양상은 기혼여성이 공식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개개인의 여성이 예전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갖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취업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의 책임을 지고있는 상황이다. 공산노동시장내의 기혼여성 참여의 증가는 그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여성과 임노동 관계의 질적 변화를 나타냈다. 즉 재정적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공식 노동의 경직된 조직으로 파생되는 제약들 때문에 임노동과 복지국가 서비스의 사회적 욕구들 사이의 일련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싸쑤는 비록 많은 여성들이 노동력에 대거 진출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가 이러

한 삶의 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정, 노동세계, 복지국가등이 모두 여성들의 전통적 역할의 계속적인 수행이라는 전제 아래 조직되어 있다고 말한다. 즉 경제적 구조와 함께 일어난 여성노동 시장에서의 유입이 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모순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남성적 노동모델

남성적 노동모델은 남성이 일주일에 40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노동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묵시적으로 가사노동은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하루종일 일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업주부의 완전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사실상 여성의 이중적 역할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중역할로 인하여 전일제 노동과 가정적 필요 사이의 갈등을 겪는 여성은 노동의 조직방법에 대해서 반대할 때 여성 문제 뿐 아니라 남성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야만 한다.

또한 여성들에 의한 수많은 투쟁들이 가사노동의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념 뿐 아니라 성별분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동모델로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삶은 계속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전통적 역할을 고수하는 상황에서의 노동분업은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불평등성을 지속화시킨다. 그러므로 노동분업은 남성들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方便임을 인식해야 하고,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일은 새롭고 전혀 다른 노동분업의 조건을 창조하는 취업에 대한 수요는 복지시설의 부족과 남성적 노동모델에 의해 발생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데, 임노동을 구하려는 결정은 가정 '경제'라는 상황에서 결정된다.

여성의 노동참여는 여성이나 가족의 관점에서 경제적 측면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자존심, 긍지, 확신, 성취감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여성의 임노동 참여가 약간의 독립성을 부여 받고 가정에만 있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극복하게 되며 사회적 관점에서 노조활동의 근거를 제공받고, 더 많은 사회, 정치적 지식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노동하면서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여성들 또는 실제 가사노동의 책임을 분담하는 남성에게는 시간이나 정력이 없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거나 노조활동, 정치활동에의 참여가 어렵다.

많은 수의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해 여성의 임금이 도움을 주고 있으나, 가족내에서는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비경제적인 필요와 요구가 있다. 자녀양육, 물건구입, 그밖의 집안일 등을 수행하려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의 수용을 위해 여성들이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다. 즉 여성의 수입에 의해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수입에 대한 의존이 가정적 요구에 의해서 남성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남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남녀사이의 상호의존적 구조나 성격에 대해

서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남성이 가정의 필요에 의해서 시간적, 육체적, 정서적 에너지라는 측면보다 화폐자원의 측면에서 수행한다는 사실은 다양한 결과를 수반한다. 즉, 남성이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소위 '가족임금'은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가족들은 남성들의 가족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임금'은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극소수의 가족에게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훌륭한 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투쟁, 더 많은 여성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조직의 변화를 위한 투쟁, 부모의 산전산후 유급휴가 이전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 빈곤 상태에 직면하지 않게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투쟁에서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3. 여성의 역할과 복지국가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 사적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족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가족 역할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성의 일과 자녀에 대한 선택이 자유 영역의 축정치의 하나는 복지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복지 국가가 가지는 근본적인 전제는 가족 또는 여성이 본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 적을수록 여성에 의해서 수행되는 서비스는 많아진다.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복지국가는 남성적 노동모델과 그에 따른 성별분업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특정한 생산 형태를 반영하고 이의 재생산을 도우며, 이러한 노동 형태는 여성의 삶이 변화됨에 따라 장기적 위협을 당하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는 남성적 노동유형 즉 여성은 노동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사회적 서비스 체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그 스스로 위기의 씨앗을 발아시키고 있다.

여성들은 국가서비스 소비자로서,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가정영역과 국가영역 사이를 매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영역이 고립되고 사적 영역화 되는 경향이 있지만 또한 가정영역은 공적이고, 정치적 관계에 불가피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4. 전략의 수립

가정영역, 노동체계, 국가가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대한 투쟁과 개

혁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요구간의 순번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우선순위'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자녀양육의 사회화와 같은 단독적인 개혁은 구조적이고 혁명적인 일련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서비스 제도에 대한 투쟁이 사적으로 더 쉽게 조정될 수 있게 하는 사회 변화를 수반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국가에 위임하기 보다는 우리의 사회적 창조성을 고양시켜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안들을 제공함으로써 서로를 돕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 정치적 영역에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일관성있는 전략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뒷받침은 자녀들과 보호를 요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고 보살펴 주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되며 노동의 세계를 새롭게 변화할 수 있게 해준다.

복지국가에 대한 최근 논쟁들은 여성의 경험을 도외시 할 뿐 아니라, 생산조직이 어떻게 사회생활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간과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엥겔스가 여성의 생산영역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점을 틀리지 않으나 중요성은 잘못 판단되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노동의 세계와 가정의 영역, 국가와 사회의 욕구 사이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여성이 생산영역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 자유나 평등이 실현될 수는 없다.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은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여준다.

어떤 특정한 가족형태에 기초를 둔 이데올로기의 억압적 효과를 위해서는 억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어떤 종류의 개혁으로서 인간관계의 새로운 유형을 창조하고, 여성해방의 물적조건이나 전제를 구성하고, 남성이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사용하는 서투른 핑계를 제거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즉 성차별주의와 여성 종속에 대한 투쟁은 오직 구체적인 변화에 근거를 둘 때만이 성공적일 수 있다.

5. 자녀양육에 대한 언급 문구

“아이를 갖겠다는 선택은 여성 대다수가 임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와 욕망은 있으나 자녀 양육이나 가정관리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탁아소와 방과후 또는 방학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투쟁은 어른이나 단지 한 계급만을 위한 것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적절하게 조직적이고 사회화된 자녀양육기관은 모든 아이들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탁아소나 다른 교육제도에 의해서 지적이고 사회적이고 창조적인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보육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영역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보육원에서 핵가족 내에서 쉽게 형성될 수 있는 소외감이나 지나치게 밀착된 인간관계 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사회화된 방식으로 양육시키려는 투쟁은 여성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일이다.”

“탁아시설의 충분한 발달의 유일한 방법은 이중적 부담과 노동시장의 불리한 관계로부터 사실상 여성을 해방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노동 조직방법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남성적 노동모델은 어떤 형태의 자녀양육 제도를 갖추고 있건간에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가사노동을 어떻게 분담하고 아무리 좋은 탁아시설을 갖춘다 해도, 전일제 취업부모는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고 서두르는 시간과 저녁에 퇴근후 지쳐버리는 시간에만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은 휴식후 생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여성들이 예전에 해왔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많은 국가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학교와 같이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이전과는 다른 기관이 설립되어야 함을 뜻한다.”

6. 평가

사쑤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여성 문제를 중심에 두고 논의하고 있다. 즉 갈등을 창출하는 것은 사회가 남성적 노동모델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남성적 노동모델’이라는 핵심적 모순의 설정은 여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사쑤의 논의에서는 왜 남성적 노동모델이 유지되는가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며, 모든 투쟁의 전반적인 필요성만을 강조할 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새땅놀이방을 찾아서 -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향하여 새땅을 일구는 사람들

주혜민 / 편집부, 꽃동네 놀이방

새벽이 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별빛같이 눈을 켜고
한 시대의 가장 어두운 것들과 싸워온
사람들임을 알았습니다.

- 도종환 시인의 '새벽' 중에서 -

새 땅을 만들어 가는 성동구 행당동 317번지.
하왕 제2구역 제1지구 불량주택 재개발지역.
지난 7월 16일.

몇일째 계속되는 폭염을 피해볼 수 있을까 하는 알팍한 기대를 안고 아침 일찍 신당역에서 약속을 했다. 전날 동네 자치방범을 켜기에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다. 그도 미심쩍어 자명종 시계까지 동원해 잠을 잤는데도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해 허둥대는 하루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폭염을 피하기는 커녕 아침부터 온통 땀이 범벅이 된 채로 마을버스에 몸을 싣고 말았다. ‘새땅놀이방’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느낌이 예사치 않은 탓인지 굵이굵이 올라가는 길목이 눈여겨졌다. 종점에 내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세대위 사무실을 물었다.

“세대위 사무실요? 어느 세대위요?”

“큰 철탑이 있는덴데요.”

“아, 거기. 저쪽 골목으로 올라가세요.”

골목을 따라 잠시 올라가니 여기저기 철거의 잔재가 흔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섬뚱해지는 심정과 착잡한 기분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을씨년스럽기까지한 동네.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너무도 한가롭게 - 천연덕스럽게까지 보였다 - 잠자리를 잡고 있는 꼬마녀석들이 다 무너져 내린 집터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새땅놀이방.

네모 반듯한 분홍색 아크릴판에 파랑색 글씨가 허름하지만 깔끔한 대문 한구석에 붙어있었다. 산동네치곤 꽤 넓은 마당을 갖고 있는 놀이방이었다. 두분의 수녀님이 우릴 맞아 주셨다. 실무를 맡고 있는 백선생님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네분의 수녀님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던가. 놀이방 안은 아이들 노래로 흥을 돋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은 하나도 와 있지 않아 썰렁하였다. 6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엄마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늦게 나온다는 것이었다. 탁아소라면 당연히 엄마는 일터에 있는게 기정사실일테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지역의 상황을 미뤄 짐작하게 했다.

“철거 때문에 엄마들이 동네를 지키느라 일을 나가시질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집에 있는 엄마와 떨어지질 않으려고 하지요.”

철거 덕분에(?) 아이들은 오랜만에 엄마를 독차지하게 되었나 보다. 하긴 그것도 불안정한 차치이겠지만. 이런저런 인사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두 녀석이 들어왔다. 낯선 사람을 보자 쑥스러워하며 들어오더니 제법 장난까지 치고 있다. 어딜 가나 아이들의 모습은 한결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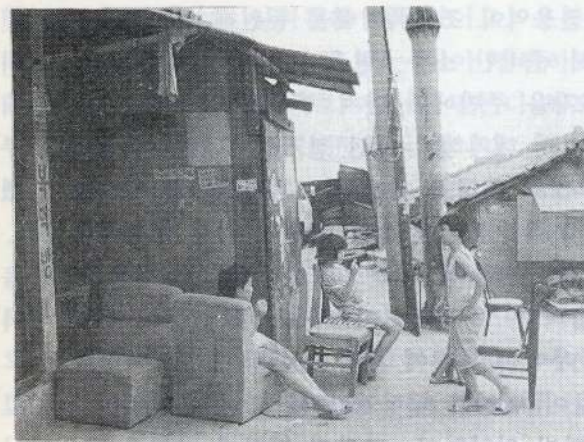
새땅놀이방이 태어난지는 한달이 되었다. 지역안에 행당배움터라는 공부방은 있었으나 탁아소는 없었던터라 세대위가 결성되면서 탁아소가 문을 열게 되었다. 세대위와 탁아소라?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세대위가 탁아소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탁아소를 만들었다니 영 모를 일이었으나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지역에 철거싸움이 시작되면서 철거싸움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엄마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다. 비상시에도 걱정없이 아이를 맡길만한 곳이 없었던 것이다. 비상 싸이렌이 울리면 그 소리



방문한 날, 늦게나마 놀이방을 찾아와 우리를 기쁘게 했던 동호(5세)와 유림이(6세).

에 아이들이 불안해하지만 때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철거민의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놀이방을 세대위 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세심한 배려를 순간 느꼈다.

“아이들은 오후 4시까지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놀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니까 우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거칠긴 하지만 순수하고 자기 안의 힘이 있어서 독립심이 강해요. 거친 부분만 잘 다듬으면 아주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절대로 수녀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니나 선생님이라 부르다며, 얼굴을 붉히시며 이야기하는 수녀님의 얼굴이 뺨뺨에 붉어지는 봉숭아 꽃잎같다는 생각이 주책스럽게도 들었다.



폐허같은 동네분위기와는 달리 어디서나 밝은 모습의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마당에서 얼굴만 조금 들어 올리면 ‘승리의 탑’이라 불리는 철탑이 골리앗처럼 우뚝 서 있다. 바람 한점 없는 하늘 한복판을 뚫어 놓을 듯 솟아 펴려있는 것발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입자대책위원회(이하 세대위) 사무실을 찾아갔다. 세대위가 곧 새땅놀이방의 모체이기도 하거니와 치열한 삶의 현장을 들어야만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이런 현실이 아이들이라고 예외로 빗겨가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꽤 넓은 공터가 나오더니 세대위 사무실이 보였다. 사무실에 계시던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세대위 총무를 맡고 계시는 문영기(36)씨가 계셨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뭐가요?”

뭐라고 딱 꼬집진 못하지만 모든 것이 다 힘들것 같아 물었던 내게 오히려 반문을 하니 조금은 당혹스러웠지만 곧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산동네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었지만 그럭저럭 살았지요. 제가 옷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세대위라고 만들어지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건지 의문도 있었구요. 그런 갈등이 경제적인 강들보다 더 컸어요.”

실제로 철거싸움을 하다보면 생계문제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철거장파와의 대처들이 이런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나 조합측에선 이를 노리고 스스로 지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장기전을 강행하기 일쑤란다. 한손에 채찍을 또 다른 한손엔 썩은 당근을 들고 길들여지길 원하는 자들에 의해 이땅의 철거민들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참된 삶을 가고자 하는 이들의 투쟁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면 문총무님은 계속 말을 이었다.

“세대위가 만들어진지 1년이 넘어섰어요. 망설이면서 세대위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다만 돈을 못벌어다줘서 마누라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다 함께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니 이해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세대위 일을 하면서 참 많이 변했어요. 성질이 불 같아서 말보다 주먹부터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이해하게 되더라구요. 동지애라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그간 여러차례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중 4.19사태는 잊혀지지 않는 싸움이었던단다. 이 싸움은 탁아소와 공부방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가(빈집) 3채를 지키다가 철거장파의

폭력에 맞서 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무진용역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일으킨 난동사건이었다. 그 당시 쟁패들은 만취한 상태에서 준비한 소주 4병을 마신후 빈병을 깨 자신의 팔을 긁는 자해 행위를 하더니 깨진 병조각을 주민에게 던져 부상을 일으키면서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철거쟁패 20명이 몰려와 부녀자를 칼아 뭉개는 등 팬티만을 입은 채 성적 희롱을 자행하는 폭력행사를 서슴없이 했다고 한다. 이야기가 나오자 조용히 있던 조직부장님이 그날 이후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그로인해 14명의 주민이 크게 다쳤지요, 주민 중 한분은 그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없이 싸우신 주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지켜낸 셈이지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새땅 놀이방이 만들어졌죠.”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여러가지 감정들이 뒤엉켜 일렁거렸다. 80년 초반부터 휩쓸고 지나갔던 철거라는 괴물과의 투쟁이 여기까지 와있었다. 그렇게 힘겹게 지역속에서 피어난 새땅놀이방이기에 주민들에게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곳인 것이다. 한참을 앉아 있자니 쑥쑥 개량한복을 입으신 여자 한분이 들어오셨다. 두딸의 어머니이자 또 한분의 총무이신 이현옥(38)씨였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데 지택연에 대해 많은 정보와 인맥을(?) 갖고 계시고 있음을 이야기속에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금새 친밀감이 들었다.

“저희는 철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가수용단지 설치로 이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같은 것도 법적으로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민의식을 갖고 권리를 찾으려 하지 않으면 보장이 불확실하기에 이것을 따내기에도 많은 일들을 해야하지요.”

그렇다면.

끝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

현재 조합측은 성동구청이 입주확인증 발급불허에도 불구하고 입주 확인증을 발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후 전매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이에 세대위측은 강력히 항의하는 반면 전매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완전 입주 할 수 있는 방안을 성동구청에 제안하고 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 이전까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수용단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재개발법 제 34조에 보면 ‘시행자는 재개발 구역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 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 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설치할 땅과 자금이 없어 할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지만 단결된 주민들의 힘으로 50%는 진전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도.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게 무엇이란 말인가?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의식과 내 문제는 내가 풀겠다는 주체의식이 결여된 주민

들 볼 때는 굉장히 일하는데 힘들었어요. 초창기에는 세대위의 말보다 조합측과 구청의 말을 듣고 주민들이 떠나갈 때는 앞이 캄캄하고 무기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대위 말이라면 팔로 메주를 만든다 해도 믿을 정도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신뢰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아마도 힘든 싸움을 같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이총무님의 말이 끝나자 문총무님이 이를 거들었다.

“맞아요, 주민들이 싸우다 다쳐 병원이라도 실려갈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지요. 차라리 내가 실려갔으면 싶어요. 그런 가슴 아픈일도 철거 쟁패들을 주민들의 힘으로 막아낼 때면 큰 감동마저 느끼곤해요. 이런 마음 하나하나를 주민들과 같이 느끼니 그 정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어쩔 땐 내몸보다 더 귀하게 보여지더라구요.”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어려운 일을 함께 해나가고 지켜줄 때 쌓아지는 애정을.

이러한 문영기 총무님이 이야기했듯이 그게 동지애라는 것일 것이다.

그건 그렇고.

나는 더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끝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네?

계속 이야기 해왔다니요?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승리의 탑’이라 부르는 철탑에서 내려다본 “새땅놀이방”. 를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가수용단지를 따내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도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엔 소규모 영세 하청업체를 생계활동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위해 터를 확보하여 단지내 공동 작업장을 설치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정과 유치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금의 복지시설을 공동체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 교육문화시설,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화사업, 그리고 탁아소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후 사업들을 앞으로 세대위내에서 준비되어지고 주축이 되어서 지역내에 자리잡아낼 것입니다. 새땅놀이방도 이런 차원에서 준비되어진 것이라 보아도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요구도 절실했지만 이런 절실한 요구가 이후의 사업에 맥을 잇는 뿌리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아직은 불안정한 새땅놀이방의 출발.

그러나 끝나지 않은 일을 준비하는 뜨거운 가슴들.

아니 공동체를 향하는 새땅의 사람들

기어코 승리의 탑에 오르고 싶었다.

가파르게 높여진 사다리를 오르고 올랐다. 점점 넓혀지는 지역의 모습이 발아래로 펼쳐졌다. 멀게만 보였던 승리의 깃발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당당히 펄럭이고 있었다. 뒤따라 올라오신 이충무님과 그밖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점심밥이 다 되었으니 내려오라고 한다.

“우리 지역에 오신 손님은 점심식사를 안하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도 반가운 소리에 계는 감추듯 점심을 먹고 아쉬움을 남긴 채 넓은 마당을 지나 내려왔다. 오늘 저녁 주민총회때 모여있을 참된 삶을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하나 하나 그려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널려져 있는 철거의 잔재 /

그속에 우뚝 솟아있는 승리의 탑 /

그리고 새땅의 사람들 /

또 아이들 /

꼭 되물려 줘야할 공동체의 삶 /

그 모든것들이 나의 등을 어디론가로 밀어 붙이고 있었다.



좋은 그림책 소개

개구장이 해리

G.자이언 지음 / M.그레임 그림 / 김종철 옮김 / 다산기획 / 5,000원

검은 점이 있는 하얀 개 해리는 목욕을 싫어한다. 어느날 목욕탕에서 물을 트는 소리가 나자, 목욕솥을 입에 물고 뒷뜰에 가져다 파묻고는, 밖으로 놀러 나간다. 도로공사 하는 곳과 기차역에서 놀고, 이어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면서 몸이 더러워졌다. 나중에는 석탄 트럭에서 미끄럼도 탔는데, 이제 검은 점이 있는 하얀개에서 하얀 점이 있는 검은 개로 변하였다. 몸이 피곤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사람들은 해리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해리는 자기를 알리어 온갖 재주를 부리지만 소용이 없다. 안달이 난 해리는 생각 끝에 뒷뜰에 파묻은 목욕솥을 파내 가지고 목욕통에 속에 들어가 목욕하기를 희망한다. 목욕을 시작하자 낯선 개가 해리임이 들어나고, 해리는 다시 집안 사람들의 따뜻한 속으로 돌아오게 된다.

목욕을 싫어하는 해리는 아이들의 심성, 놀이정신,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태도를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첫 장면부터 주인공 해리와 하나가 되어 함께 놀고, 더러워지고, 걱정하고, 답답해 하다가 또한 함께 안도감과 구속감을 느끼게 된다.

아이들에게 목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집과 부모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알려주는데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작품이다.

만화풍의 콘테화에 녹색과 황색으로 채색된 그림은 담백하지만 그 자체 말해주는 바가 풍부하여 글 없이도 즐거운 감상이 가능하다. 각 장면의 해리의 눈빛과 얼굴 표정은 바로 스토리 그 자체인 듯 재미있고 다양하다.

아이들이 주인공 해리와 완전히 일치되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글과 그림의 메시지와 효과가 아이들에게 최대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

■ 특집

독일탐방기(3)

최흥국 / 전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

(지난 5월호에 이어서)

전에 찾아 헤매던 그 유학생이 한국에 갔다 다시 베를린으로 온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전화가 되어 "MNSA"라는 베를린 공과대학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주 예쁜 아줌마가 나와 계셨다. 점심을 먹고 한국의 교육상황과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이번달에 "우리들" 모임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였다. 내가 바라던 바인데....

며칠 뒤 윤선영씨와 함께 "우리들" 모임이 있는 곳으로 갔다.

"우리들" 모임은, 베를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로 미혼, 기혼 여성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모임이었다. 조금 늦게 도착하여 내가 문에 들어섰을 때는 학습이 한창이었다. 한국을 떠나 온지 5년에서 15년씩 되는 그들은 한국의 소식에 매우 궁금해 하였다. 한국의 탁아상황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대접해준 음식도 맛있게 먹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들" 모임과는 별도로 베를린 자유대학('F대'라고 불렀다) 교육학과생들의 모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 모임과 교육학과 모임을 같이 하는 진경희씨를 소개받아서 그 교육학과 모임에 소속된 몇

몇 사람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자유대학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달렘도루프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거리와 대학은 무척 조용하였다. 그곳에서 또 한분을 소개받았는데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었는데 다행히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곳의 어린이집을 방문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그곳의 허락이 있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우리들 모임" 회원들과 함께.

그 어린이집은 별도의 시설없이 국민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한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었다. "Dahlm. Drf"라는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3층이었는데, 현대식 건물에 운동장이 꽤 넓었다. 각층마다 교사실과 주방, 탈의실과 화장실 그리고 3개의 교실과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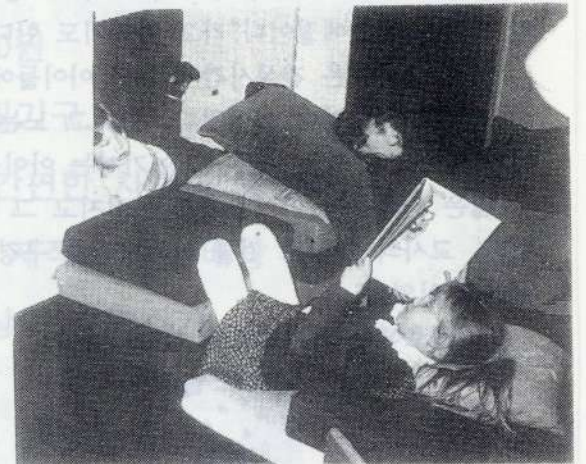


운동장 전경. 운동장이 꽤, 많이, 매우 컸다.

형태가 완전히 달랐다(엄격히 이야기하자면 교사들의 교육철학에 따라 수업의 형태가 다르다). 각층마다 1반에 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한반에는 15명에서 20여명의 아이들이 있었다(통일이후 교육상황이 더욱 더 어려워졌다). 1층은 3개반의 교사들이 협의하여 3개반을 open된 형태로 공동보육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층에서는 1명의 교사들이 자신의 반만 책임지고 다른반에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한 어린이집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층의 교사들은 다른 층의 교사들에 비해 더 많은 회의와 시간과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교사들이 무언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는 노력들은 볼 수 없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웃고 뛰놀며 2층에 올라가(각반에는 다락처럼 만들어진 2층이 있었다)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층의 3개반과는 달리 다른 층의 교실들은 매우 깔끔해 보였으나 웬지 모르게 아이들은 많이 경직되어 보였다.



체육실내. 아이들이 나와서 놀거나 누워서 책을 보기도 한다.

교사들이 어떤 관점에서 교육을 하는가에 따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어린이집을 보면서 한국의 상황이 많이 머리속에 떠올랐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원하고 자유롭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윌른과 마찬가지로 이곳 베를린에서도 부모의 수입에 따른 철저한 차등보육이 실시되고 있었다.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육의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하지만 그 기회에 대한 댓가는 하늘과 땅이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많은 사람은 그에 맞춰 교육에 대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다.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곳에서도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늦게 회사를 마치는 부모를 위해서 같은 동네에 조금 일찍 회사일을 끝낸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간다. 서로 편의를 봐주는 이런 모습은 맛벌이가 일상화된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이라 한다.

방문한 시간이 마침 간식시간이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과자 바구니를 옆사람에게 돌린다. 우리 같이 "평등"이란 이름하에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빵하나 굴 2개씩(?) 나누어 주는 것과 약간 비교가 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먹는 것은 엉망이었다. 우유를 먹다 흘린 것을 소매로 닦는 아이, 옆 아이와 장난치는 아이, 흘린 과자를 주워먹는 아이 등,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옛동독에서 이곳으로 근무온 어느 여선생님이 동독에서의 식사예절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교육시킨다고 했다. 물론 일과표도 시간별로 철저하게 짜여져 있고... 그래서 우스게 소리로 "동독교육의 자랑은 식사예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고 일어난 아이에게 선생님이 양말을 신기고 있다.

이곳 교사들은 간식시간에 그런 아이들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간식시간은 계속 이어졌다. 안먹고 노는 아이, 끝까지 계속 먹는 아이,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먹는 아이... 여기서는 아이들을 불러모으는 일도 없었다.

많은 자유들이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그 책임 또한 아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사의 안내로 건물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나서 어린이집을 나서는데 하얀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다음호에는 마지막편이 실립니다.)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들어서면 로비 가운데 마련된 옷걸이와 사물장에 자기 외투를 걸어둔다.

'94 지탁연 여름 교사수련회

일 시 : 94년 8월 1일 10:00 - 8월 2일 17:00

장 소 : 대전 동학사 입구 동학산장
(042-825-4301)

회 비 : 개인당 25,000원

준비물 : 세면도구와 필기구,

등산을 위한 간편한 차림과 운동화,

큰 붓(기념티 제작), 등산배낭

지역준비 : 전지 1장 이상의 지역소개

각 지역에서 아이들과 비지땀을 흘리며 생활하는

우리의 지탁연 교사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한 예정과 믿음,

아이들에 대한 사랑,

연합회에 향한 굳센 단결력으로

올 하반기를 다시 한번 일구어냅니다.

■ 보고

제3회 교육강좌 신나는 미술활동

미술교육강좌 성황리에 마쳐

6월 25일, 7월 9일 이틀에 걸쳐 본회에서는 교사재교육의 하나로 미술교육강좌를 개최하였다. 평균 참가교사가 39명이었으며, 본 회 소속외에 안산, 평택 등 타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가 참가하였다.

강좌내용을 살펴보면 강의1. 아동미술교육입문(김병철선생)은 아동미술을 대하는 교사의 자세에 대한 강의였다. 이 강의는 교사가 아동미술을 대함에 있어 짧은 지식으로 쉽게 아동의 그림을 재단하고, 평가해서는 안되며, 미술활동은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

강의2. 유아미술의 특징과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노수산선생)는 미술교육의 이론단계로 슬라이드를 보면서 강의가 진행되어 직접 유아의 그림을 봄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흥미진진했다.

강의3. 조형활동(노수산)은 수업지도와 수업지도의 예로 실제 작업을 해 보는 것으로 진행했다. 종이판화, 흔들리는 인형,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고 우리 유아의 연령에 맞게 고민해 보았다. 이 강의에서 조형활동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며, 왜 저연령의 아이들은 특히 조형활동으로 미술교육에 접근해야하는가 하는 내용이 전달되고 수업지도에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 내용은 이후 강사에게 소식지의 글을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강의4. 영유아프로그램 미술활동의 분석 및 대안(이영애)은 영유아프로그램(보사부 발간)이 현장에서 비교적 자주 참고하는 책이고, 현재 유일하게 모든 연령의 보육프로그램을 총망라한 책이기에 꼭 이 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했고, 부분적이거나 미술교육을 평가한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연령별 유아의 발달과 미술교육, 미술활동시간의 운영, 미술활동의 실재는 교사들이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제 해보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미술활동의 제반 측면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강의5. 현장교사 사례발표 및 모의수업(본회 교사 5인)은 교사들이 가장 흥미있어한 강의였다. 현장의 사례를 보고 직접 해봄으로써 미술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발표내용이 특별하게 참신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간의 창조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교육강좌는 찰리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강좌에 임했던 교사들의 자세가 가장 돋보이는 자리였다. 이번 강좌를 하면서 현장에서의 창조적인 사례발굴의 의도한 것보다 적었고, 우리가 보육하고 있는 대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미술활동의 사례가 많이 발굴되어야 하며, 이 역할은 바로 현장교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미술교육현장교사 소모임을 구성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교사들이 많이 참가하기바라며, 8월안으로 본회 교육부로 신청하면 된다.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미술활동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이영애 / 본회 교육연구부,

현 한국방송통신대 유아교육학과 조교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공포된 이후, 영유아의 탁아를 전담하고 있는 탁아소와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의 지침이 되는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을 보건사회부에서 발행하여 지금껏 탁아소와 어린이집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내용 중 '미술활동'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술활동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미술활동에 대한 분석

첫째,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은 탁아소의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서로 생활주제로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주제에 따른 접근에도 불구하고 생활주제가 추상적인 것이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생활주제에 기초한 미술활동 역시 추상적인 활동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교육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예) 생활주제 : 내마음

활동 : 내가 만약 남자(여자)라면

둘째,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미술활동은 영유아의 연령, 발달 단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①같은 활동의 반복이 많고, 연령별로 제시할 때 ②활동 제시방법, ③작품전시 방법 등이 차별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1) 회전하기

0-2세 8단계 : 2-3번 회전하기

3세 11월 1주 : 7번 회전하기

4세 1월 1주 : 4번 회전하기

예2) 달걀껍질모자이크

4세 12월 1주, 1월 4주

5세 11월 1주(환경구성 및 대그룹활동)

예3) 털실디자인

3세 1월 4주 : 털실 잘라서 꾸미기

5세 7월 2주 : 스킨자수

5세 1월 2주 : 색실디자인

--> 털실디자인의 경우 '색실디자인' 활동이 '스킨자수' 활동보다 앞서서 제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스킨자수' 활동이 유아의 소근육발달이 더욱 필요한 활동이므로.

- * 교사는 미술활동을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
- * 탁아소는 장기간(적어도 2년에서 3년) 한 기관에서 보육을 하므로 미술활동 후 전시방법이나 활동제시방법의 변화(차이)가 명확해야 한다.
- * 전체 유아가 미술활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 > 환경마련 : 일정시간 동안 미술영역마련
- * 같은 활동의 반복이 많고, 활동제목이 같아도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시를 보고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탁아소가 장시간 운영되기는 하지만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미술활동이 너무 많고, 새로이 소개되는 활동이 생활주제에 끼워 맞추기식의 활동이 많았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적 측면과 부합되는 활동을 선별해서 실시해야 하겠다.

- 예1) 3세, 동물
영유아보육프로그램 : 미술활동 20개
이대부속유치원프로그램 : 미술활동 10개
- 예2) 미술활동은 유아가 즐거워야 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생활주제에 끼워 맞추기식의 활동은 유아의 흥미를 잃게 한다.
- > 4세 11월 수

넷째, 미술활동 소개시 활동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은 활동이 많았고, '그림'을 통한 설명 또한 적었다.

- 예) 영유아보육프로그램
- 5세 3월 3주(환경구성 및 자유선택활동)의 모루찍기
- . 4-5색의 그림물감이나 염색물감, 무늬없는 손수건, 다리미, 모루찍기판(그림참조)을 준비한다.
 - . 종이 위에 찍기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찍어 본다.
 - . 잘 찍게 되면 손수건 위에 염색용 물감으로 무늬를 찍은 후, 건조시킨다.
 - . 완전히 마른 다음, 다림질을 한다.

다섯째, 영유아보육프로그램에서는 활동내용을 '환경구성과 자유선택활동'과 '소집단 및 대집단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구분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환경구성(미술영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또한 자유선택활동의 미술활동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여 활동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 유아의 미술활동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혼경구성을 매력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유아의 미술활동 결과물을 작품화시키거나 여러가지 화보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가능하다.

* 일반적으로 '소집단 및 대집단 활동'을 통한 미술활동 후 작업순서도 등을 통한 '자유선택활동'으로 활동을 제시한다.

여섯째, 미술활동방법은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활동 후의 유아의 활동 결과물을 작품화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 부모에게 유아의 작품을 제시해주어 유아의 작품에 대한 존중감을 키워주고, 유아에게도 자신의 작품에 대한 존중감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

예)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4세(7월 1주) '비누거품 그림' 활동

- * 목표 : 안정되게 팔과 손 쓰기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 * 준비물 : 물비누 1/4컵, 녹말가루 2숟가락, 도화지, 식용물감, 숟가락, 사기그릇, 신문지, 달걀 젓는 기구
- * 활동방법 :
①비누거품을 만들어 놓는다.
-사기그릇에 비누, 녹말가루, 물을 넣고 달걀 젓는 기구로 충분히 잘 젓는다.
-이것을 몇개의 그릇에 나누어 넣고 저어서 각각 식용물감을 넣어 여러가지 색깔을 만든다.
-색깔이 나타난 비누거품을 손가락으로 찍어 시험지에 칠해보다 색깔이 옅으면 식용물감을, 그리고 비누거품이 너무 뽁뽁하면 녹말가루와 물을 더 붓고 젓는다.
-책상에 신문지를 깔아 놓는다.
- ②유아들은 작업복을 입고 옷 소매를 걷어 올린다.
- ③비누거품을 손가락에 묻혀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
- ④다 그린 그림은 그냥 신문지 위에 펴 놓고 말린다.
- * 유의점
-활동이 모두 끝난 유아는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물비누는 피부에 해롭지 않은 것을 택하도록 한다.

A. 연령별 유아의 발달과 미술교육

유아의 미술활동은 단지 그림 그리기만을 일컫지 않는다. 유아미술은 ①평면그림 그리기(그림물감, 무늬박기, 물들이기, 그리기, 자르기, 붙이기, 찢기), ②입체적인 모형 만들기(빚어 만들기, 구성하기 - 모빌, 목공, 꾸미기 - 인형, 가면 퍼펫), ③창작활동 등의(이정환, 1989) 넓은 영역을 포함한다. 따라서 유아가 미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근육, 대근육의 발달과 함께 인지적, 사회적인 발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유아의 미술활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그림'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소근육, 대근육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그림, 가위질 하기, 점토활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유아의 연령에 따른 블럭 쌓기, 놀이형태, 물모래 놀이 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유아 발달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유아 개개인의 발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연령과 발달상태에 따라 미술활동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가 있다.

1. 1세-1세반

- 1) 1세경: 연필이나 크레용을 잡고 뭔가를 그리기 시작한다.
- 2) 크레용을 건네주면 젓가락을 쥐듯이 막쥐기로 손바닥 전체를 쥐고, 크레용의 머리부분이나

꼬리부분으로 그린다.

2. 1년반(18개월) - 2세

1) 동작의 형에서 본 발달

- ①성냥갑이나 빈 상자 등을 잘 쌓아 올린다.
- ②블럭 3개를 쌓을 수 있다.

2) 블럭 쌓기

- ①세개의 입방체의 블럭을 쌓아 올려서 탑을 만들 수 있다.
- > 몇번의 시도 끝에 겨우 쌓게 되는 것이고 블럭을 놓고 손을 떼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린다.

3) 난화가 시작됨.

3. 2세

1) 블럭 쌓기

- ①다섯내지 일곱개 정도의 블럭을 쌓아서 탑을 만들 수 있다.
- > 완성된 탑은 대체로 기울어져 있게 마련이고, 블럭이 일직선에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②차에 토막나무를 싣고 옮겨서 쏜다.
- ③크기가 다른 토막나무를 아무렇게나 연결해서 탑을 쌓고 줄을 만든다.
- ④색칠이 되어 있는 나무토막을 좋아한다.

2) 손과 눈의 협응력이 생기기 시작

3) 크레용과 종이접기

- ①손가락 끝으로 칠 수 있게 되며, 손가락을 안쪽으로 꼬부리고 크레용의 머리 쪽을 잡는다.
- ②종이를 한 번 접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이를 흉내낼 수 있다.

4) 그림

- ①18개월 때보다 손목 동작이 유연하다.
- ②종종 한 손에 하나씩 붓을 쥐고 그림을 그리지만, 붓을 다른 손으로 옮기지 못하는 못한다.
- ③아무 색이나 '문지를 수 있는' 종이 좋다. 색 위에 자꾸 여러 색을 덧칠한다.
- ④한가지 색만 사용할 때는 획을 다양하게 그린다.
- ⑤유아에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 ⑥쉽게 산만해지고 항상 손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은 아니다.
- ⑦한 종이에 다른 유아와 함께 그림을 그림으로써 사회적 경험의 즐거움을 맛본다.

5) 손가락 그림과 진흙

- ①처음 시작할 때는 색칠하는 느낌과 손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거부하지만 몇 번 해본 뒤에는 재미있어 한다.
- ②진흙을 두드리고, 손으로 누르고 조각으로 떼어낸다.
- ③진흙 맛을 보려고도 한다.

6) 물모래 놀이

- ①모래와 돌로 그릇과 접시를 채운 다음 쏟고 던지곤 한다.
- ②물놀이, 예컨대 손뭉기, 옷빨기, 그릇에 물을 붓고 비우기 등을 매우 좋아한다.

7) 혼자놀이

4. 2세 반

1) 블럭 쌓기

- ①수직과 수평으로 쌓는 것을 계속한다.
- ②토막나무를 몇개 쌓아 늘어 놓고 다리, 침대, 기차라고 명명한다.
- ③이전보다 큰 나무토막을 사용한다.
- ④가끔 가상적으로 토막나무를 석탄이나 재목으로 사용한다.
- ⑤몇가지 색깔로 토막나무를 분류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다.

2) 그림

- ①수직선, 수평선, 점 및 원을 그려 본다.
- ②그리기 시작할 때는 그럴 듯한 형태로 출발하지만 일반적으로 금방 흐트러진다.
- ③종이 외에 탁자, 마루, 벽이나 다른 유아 몸에 칠을 하기도 한다.
- ④많은 종이에다 같은 그림을 자꾸만 그린다.

3) 손가락 그림

- ①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면 손이 매개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고, 붓이나 물감통 같은 도구나 용기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나이에는 연필이나 크레용으로 그리는 것보다 더 좋다. 아직 혼란된 시기이기 때문에 물감이 간단할 수록 복잡성이 줄어들어 더 좋다.
- ②합법적으로 물감을 손에 묻히는 즐거움을 느낀다.
- ③형태에 대해서는 별로 느끼지 않고 그저 다루고 색칠하는데서 순수한 즐거움을 느낀다.

4) 진흙

- ①각 유아가 똑같은 자료를 가질 수 있어서 다른 유아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이 시기의 특징이 최소한으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진흙이 아주 좋은 놀이재료가 된다.
- ②진흙놀이는 주의집중시간을 길게 하므로, 하고 난 후에 휴식을 취하게 된다.
- ③금지행동이 합법화될 수 있고, 다른 자료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의집중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④진흙으로 만든 것을 과자나 케이크라고 하면서 서로 돌려 보기를 좋아한다.

5) 물놀이

계속해서 물에 강한 흥미를 느낀다. 물 역시 이 나이 또래 유아에게는 아주 좋은 재료이다. 비누방울 만들기, 물을 칠하기, 세탁하여 줄에 널기, 배 띄우기, 물로 닦기를 좋아한다.

5. 3세

1) 블럭 쌓기

①블럭 3개를 가지고 다리 모양을 만들수 있다.

-> 다소 빳나갈 때도 있으나 천천히 정확하게 쌓을 수 있으나 손을 때는 데는 다소 불안이 남아 있으며, 때로는 탑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손을 사용할 때도 있다.

②형태와 크기가 다양한 토막나무들을 좋아한다.

③놀이에 자동차, 기차 등의 장난감과 토막나무를 함께 사용한다.

④자신이 만들고 있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 자주 있다.

⑤완성품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더 좋아한다.

⑥토막나무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무엇인가를 짓는다.

2) 종이접기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한번 접고,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접을 수 있다.

3) 가위질을 할 수 있다.

4) 그림 그리기

①획이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울동감이 있다.

②디자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③전체를 한 색깔로 덮어 버리거나, 아니면 면을 나누어 여러 색깔로 칠하거나 한다.

④때때로 자기가 그린 것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 작품과 이름간에는 유사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⑤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고, 재능이 있는 유아가 그리는 것을 지켜 보거나, 혹은 같은 또래의 다른 유아가 자기보다 더 잘 그리는 것을 봄으로써 자극을 받기도 한다.

⑥자기가 완성한 것에 기쁨과 긍지를 느끼며, "내가 그린 것 좀 봐!"라고 소리를 지른다.

⑦이전보다 더 집중하여 정확하게 그린다.

⑧다른 유아와 종이를 나눠 쓰기를 싫어한다.

⑨수평선, 수직선, 십자형, 원과 같은 것을 어른들이 그려 보이면 모방해서 그린다.

5) 손가락 그림

①손을 움직여 볼 뿐만 아니라 손가락 동작도 시험해 본다.

②디자인에 대해 어떤 느낌도 갖게 된다.

6) 크레용

①엄지와 인지 사이에 크레용을 끼우지만, 중지 끝은 크레용으로 뺄게 된다.

②여러가지 색깔을 요구한다.

③물감보다는 크레용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일찍 표상적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7) 점토

①두드리거나,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거나, 누르는 등 손으로 점토를 다루는 것을 즐겨 한다.

②형태를 만들기 시작해서 납작하고 둥근 '케이크'를 만들며, 길고 가느다란 조각을 형성하기도 한다.

③자기가 만든 것에 제법 근사한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④어머니를 위해 작품을 만들지만, 집에 가져가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만다.

8) 놀이시간이 길어지고, 또래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하고 또래 집단의 구성원으로 역할할 수 있다.

6. 4세

1) 블럭 쌓기

①블럭 쌓기를 상당히 잘 하게 된다.

-> 안정된 손쓰기를 하며, 손을 뗄 때도 탑을 망가뜨리지 않게 주의해서 한다.

-> 두 손을 쓰는 일이 있어도 그 손은 제각기 다른 일을 분담하기도 한다.

②몇몇 유아들과 함께 집짓는 놀이를 할 수 있다.

③여러 가지 모양의 토막나무를 대칭으로 조합하여 복잡한 구조물을 만든다.

④완성된 모양을 즐기며, 이를 치우지 못하게 한다.

⑤만든 구조물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여 극적 놀이를 한다.

⑥다음날에는 전날 만든 것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2) 그림

①엄지, 중지, 인지 3개로 크레용 끝 가까운 부분을 힘을 넣어서 꼭 잡게 된다.

②붓을 어른처럼 잡는다.

③한 그림을 오랫동안 정확하게 그리기도 한다.

④자기 그림을 말로 설명한다.

⑤물체의 세밀한 부분은 그리지 못한다.

⑥상상력이 풍부하다.

⑦크기의 비례, 공간관계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크게 그린다.

⑧도안을 그리고 글자를 미숙하게 쓴다.

⑨정사각형을 본을 보고 그릴 수 있으며, 원과 정삼각형의 두줄의 선 사이를 잘 지나갈 수 있다.

⑩원이나 삼각형을 본을 보고 그릴 수도 있게 된다.

3) 여러 명의 또래와 어울려 단체로 논다.

각 아동이 특히 좋아하는 놀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엄마가 없이도 친구들과 오랫동안 어울려 놀게 된다.

7. 5세

1) 동작의 형에서 본 발달

두 줄기의 윤곽으로 그린 원이나 사각형의 두 줄기 선 사이를 대체로 올바르게, 밖으로 빗나가 지 않도록 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2) 블럭 쌓기

블럭 쌓기를 하는 동작은 속도, 정교성, 정확성 등에서 뚜렷한 진보를 보인다.

3)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게 되고, 주위 아동들에게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B. 미술활동시간의 운영

1. 계획

교사가 계획한 활동은 교사가 유아의 흥미와 발달 정도, 계절, 주제, 작업양상 등을 고려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활동을 계획하며 준비해 주어야 한다.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라도 3,4세 유아에게는 물론 5세 유아에게도 거의 선택활동 시간중에 교사가 의도적으로 전시해 준 미술품을 감상할 따든지 미술과 관계된 책이나 인쇄물을 본든지, 미술영역 책상에 자료를 준비, 제시하면 원하는 유아들이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견학 후, 생일 축하, 복잡한 과정의 활동 등)에 따라 하루일과 프로그램 중 미술활동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새로운 활동을 소개, 실행하기도 한다.

2. 실행

1) 동기유발의 여러가지 유형

동기란 감각적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려는 심리적 욕구에 대하여 사유, 감각, 직관을 통한 자극을 주어 흥미를 일으키는 것으로, 어린이들은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동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사는 어린이들이 표현활동에 임하기 전에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흥미를 북돋워 주며 감정을 자극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동기는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점차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준 높은 동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령이 낮을 수록 신변적 사실에 관한 이야기가 어린이들의 풍부한 공상을 자아내므로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

(1) 인적 자원 및 아이디어에 의한 동기 유발

①자기가 독특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자신의 예술표현이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 없으며, 독특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②교사의 기대

교사는 어린이에게 상상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각 어린이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암시한다. 또 어린이들의 노력에 대한 칭찬이나 진가의 인정도 동기를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③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 인식

어린이들은 그들 자신이 지닌 사고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욕망에서 자신에 대한 가치(존중)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작품 제작 기술을 향상하려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④재미있는 분위기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실내를 장식한다. 또한 교실을 벗어나 자유로운 공간 즉, 운동장이나 들뜬, 모래사장 등 넓은 공간을 이용하여 동기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⑤적절한 동기

주어지는 동기가 어린이들의 발달 수준에 알맞아야 하며, 적절한 시간 내에 주어여야 한다. 동기를 주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린이들은 동기를 잊게 되며, 생동감 있게 창작할 수 없게 된다.

⑥활발하고 유우머스러운 교사의 행동

교사의 행동이 극적이고 충동적이며 활발할 때, 어린이들은 교사가 기대하는 결과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된다.

⑦교사의 시범

활동 과정을 교사가 간단히 시범 보임으로써 어린이로 하여금 관찰하거나,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2) 감각적인 재료에 의한 동기 유발

어린이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재료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성질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게 되며, 이것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재료 이용의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①시각적인 자극의 제시

②청각적인 자극의 제시

레코드, 악기, 녹음된 테이프, 자연의 소리 등을 통해 들은 음악이나 소리에 대해 어린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움직임, 형태, 느낌 등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를 간단한 기호표시나 그림, 이야기로 표현하게 된다.

③시와 이야기

④산책과 재미있는 곳의 관람

(3) 상상에 의한 동기 유발

상상(재생적 상상, 창조적 상상)은 창의적인 표현활동에 좋은 동기를 부여한다.

①시각표상의 실례와 지도된 이미지

②가상적인 세계

③어린이들이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도록 하며, 상상력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생동감 있는 어휘를 사용하게 한다.

④ '만약에 무엇이...'

2) 지도상의 유의점

(1)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어린이들의 표현활동은 각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발전시키도록 격려한다.

: 어린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는 그들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의 발상을 도와준다.

: 너무 나이 어린 유아에게는 구체적인 질문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3) 교사의 지도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시나 제한, 비판은 피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부드러운 태도로 권유하고 고무하며 어린이들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4)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위하여 발달 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경험과 표현이 균형을 이루게 한다.

(6) 어린이들의 조화로운 발달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7)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시킨다.

어린이들은 재료 사용에 일정한 규정을 가하지 않는 한, 같은 재료와 내용의 반복에도 결코 싫증내지 않으며 즐겁게 놀이하고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 낸다.

3. 평가

평가란 실시된 모든 학습에 있어서 학습목표에 대한 성취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는 미술활동이 어린이의 창의력, 표현력, 상상력, 관찰력 및 조형적 감각과 지적, 육체적, 사회적 성장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와 향상을 가져왔는가를 관찰하여, 다음 학습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의 미술활동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자아의 반영이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술활동을 통한 어린이들의 감정상태의 변화와 성장 발달 그 자체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미술활동에 대한 평가는 날카로운 비판이나 엄격한 비교는 절대 피하여야 하며, 언제나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어야 한다.

1) 평가의 유형

(1) 교사의 평가

① 칭찬을 통한 평가

칭찬은 모든 어린이에게 골고루 해야 하며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연을 통한 평가

조언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참신하고 새로운 표현 및 형태를 이루는 독자적인 방법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평가

④ 어린이 내부의 진실된 반영으로서의 평가

교사는 작품이 지닌 미적 가치나 기술의 세련됨을 관찰하기 보다는 어린이 내부에 일어나는 그들의 심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고, 변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어린이의 정신활동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2) 어린이 자신에 의한 평가

어린이 스스로에 의한 자기 평가는 자아 확신과 신뢰감을 길러 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 자기 평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①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을 통한 자기 평가

② 작품 전시 및 뒷놀이를 통한 평가

작품 전시 때에는 되도록 모든 어린이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편이 좋으며, 어린이 자신에 의하여 선택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품을 자주 바꾸어 전시하여 가능한 모든 어린이의 작품들이 차례로 전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3) 교사 자신에 대한 평가

① 지도상의 기준

활동의 내용 및 재료는 교육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목표 및 지도 계획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시되었는가?

내용이 어린이 발달 수준에 적당한 것인가?

어린이 나름대로의 개성과 창의성 및 감수성을 존중하였는가?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재료들은 어린이 발달 수준에 적당한 것인가?

작품 제작 후에 그것을 이용한 뒷놀이 및 자기평가는 실시되었는가?

어린이들의 표현 능력, 감상능력에 대한 기록은 하였는가?

② 경영상의 기준

교실의 광선은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였는가?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및 활동에 필요한 공간, 재료는 충분히 구비되었는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재료는 준비되었는가?

작품 전시는 자주 실시되는가?

③ 교사의 자질

어린이들의 상태, 흥미 정도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지녔는가?

어린이 미술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

학습 지도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는가?

교사 자신의 미술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국내외 미술 전시회 및 미술교육 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가?

교사의 외모는 정결하고 부드러운 동시에 유우머스럽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녔는가?

4. 전시

1) 완성된 작품은 사물함에 갖다 놓든지 자기가 선택한 작품(1주 동안 작업한 것 중에서)을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방법으로 전시하도록 교사에게 제출한다. 책상이나 선반 같은 곳에는 점토작품이나 구성물을 전시할 수 있다.

2) 교사에게 제출한 작품은 함께 모이는 시간에 유아들에게 자기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면서 발표하고 토의할 기회를 주는데 사용하든지 교사가 자기 반의 공간과 형편에 맞게 구성하여 3-6일 정도 전시해 준다.

3) 모든 유아의 작품을 다 전시해 주어야 하지만 한꺼번에 다 전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아들에게 양해를 얻은 후 몇 회로 나누어 순번제로 전시해 준다. 유아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교사가 유아의 작품에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작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작품화시켜 주는 것(장식 테두리, 액자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4) 개개인의 작품을 모아 공동 작품화시켜 준 작품 또는 사전에 의논하고 작업분야의 분배를 거쳐 협력하여 완성된 공동작품을 통하여 '우리의 것에 속해 있는 나의 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가치로운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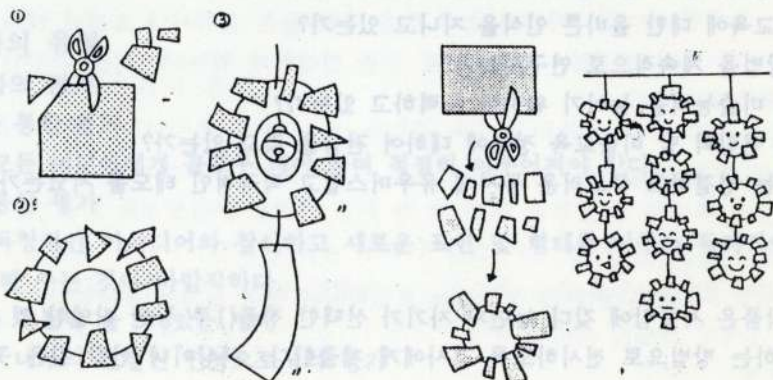
5) 공동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교사는 유아의 태도를 집단활동에 어울리게 만들어 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자기의 경험을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집단에 소속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C. 미술활동의 실제

1. 종이 찢거나 자르기

종이를 찢거나 자르는 활동은 유아의 소근육 발달을 촉진시키므로 유아에게 매우 유익한 활동이다. 따라서 1,2,3세 영유아가 종이를 찢거나 오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오리기의 준비활동으로서 점토 만지기, 점토 자르기, 빨대 자르기, 종이 찢기 등을 제공해 주면 좋다.

유아가 찢거나 자른 종이를 작품화시켜 주거나 이후의 다른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면 좋다. 찢거나 자른 종이를 작품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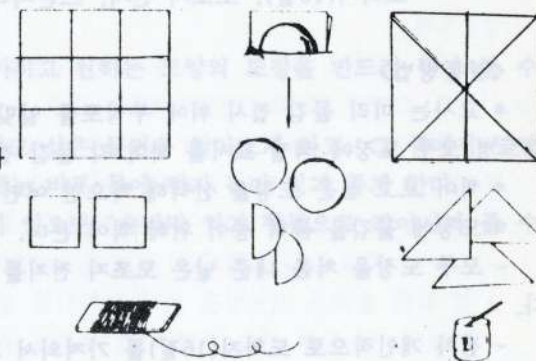
2. 색실 디자인

1) 5세

준비물: 색종이, 색실, 신문지, 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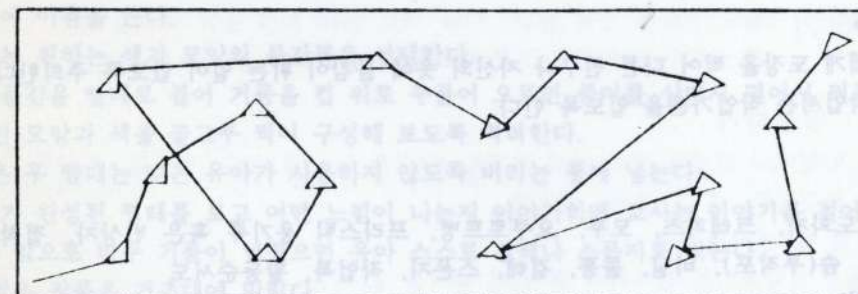
<활동방법>

- * 색실무늬의 만드는 방법을 알게 한다.
견본을 보고 선무늬 만드는 요령을 설명한다.
- * 색종이를 세모, 네모 원으로 오린다.
원으로 오릴 때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쉽게 자르는 요령을 지도한다.
- * 선무늬를 만든다.
오린 색종이 밑에 실을 넣고 풀칠을 한다.
실을 늘어지지 않게 잡아 당기면서 붙여 나간다.
될 수 있는대로 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 *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한다.
작업 중에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한다.



<유의점>

- * 실을 잡아 당기면서 해야 하므로 교사는 민첩한 행동으로 개개인을 보살피도록 한다.
- * 풀칠할 때 신문지를 깔고 하도록 지도한다.
- * 색종이를 붙일 때 색의 조화를 생각하도록 이끈다.
- * 색종이를 자른 후 상자 혹은 바구니에 각 모양대로 담아 놓는다.



2) 3세

3세의 경우는 '색실 디자인' 활동을 제시할 때 여러 모양의 색종이를 교사가 오려서 마련해 주거나 색종이에 여러 모양을 그려 놓아 유아들이 오릴 수 있게 준비를 해준다. 또한 색실도 약간 두꺼운 것을 준비하고, 색실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붙이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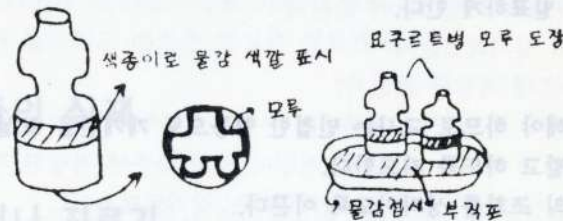
3. 모루도장 찍기

1) 3세

준비물: 물감, 부직포, 물감 담을 접시, 요쿠르트 병, 바닥에 모루를 붙여 만든 도장
도화지(16절), 모조지 전지, 스폰지나 걸레, 건조대

<활동방법>

- * 교사는 미리 물감 접시 위에 부직포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붙이고 물감을 타 놓은 뒤, 요쿠르트병 모루 도장에 색깔 표시를 하여 각 물감 접시 위에 올려 놓는다.
- * 찍어 보고 싶은 도장을 선택해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생각해본다.
- * 도장에 물감을 묻혀 종이 위에 찍어 본다.
- 모루 도장을 처음 내준 날은 모조지 전지를 내어 주어 넓은 공간에서 마음대로 찍어 보게 한다.
- 점차 개인적으로 도화지(16절)를 가져와서 개인적으로도 찍어보게 한다.
- * 찍기가 끝난 모루도장은 색깔별로 물감접시 위에 분류해 놓는다.
- * 찍혀 나온 모양들을 관찰해 본다.
- * 건조대에 말린다.



<유의점>

- * 너무 세게 도장을 찍어 다른 친구나 자신의 옷에 물감이 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 물감 작업시는 작업가운을 입도록 한다.

2) 5세

준비물: 도화지, 크레파스, 모루, 요쿠르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혹은 빈상자, 접착제, 물감 및 물감용기, 솜(부직포), 비닐, 물통, 걸레, 스폰지, 작업복, 활동순서도

<활동방법>

- * 유아들에게 활동 순서도를 보여주며
- ① 종이의 뒷면에 이름을 쓴다.
- ② 어떻게 도장을 찍을지 계획한다.
- ③ 도장을 찍는다.
- 도장을 찍은 후 부족한 부분을 크레파스로 보충할 수 있다. 또는 크레파스로 먼저 그림을 그리며 도장 찍을 자리를 남겨 놓을 수도 있다.
- 연속적인 무늬, 다양한 형태의 무늬로 구성할 수 있다.

④ 건조시킨 후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한다.

<유의점>

- * 물감이 섞이지 않도록 도장의 손잡이에 색깔표시를 한다.
- * 도장찍기에 익숙해지면 손수건이나 옷감 위에 염색용 물감으로 찍어 본다.
- 염색용 물감이 완전히 마른 뒤에 다림질을 한다.

<기타>

- * 활동에 익숙해지면 유아들이 직접 모루를 가지고 원하는 모양의 도장을 만드려 찍어 볼 수 있다.
- * 활동실에 있는 장난감 중에서 도장찍기를 하고 싶은 물건을 찾아오게 하고, 그 중에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물건을 고른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바로 물에 담가 놓아 씻기 좋게 한다.
- * 유아들 중에 손바닥을 찍고 싶어하는 유아가 있으면 '손바닥 찍기' 활동으로 전이시켜 줄 수 있다.

4. 비누 거품 그림

1) 4세

준비물: 물감을 탄 비누거품을 담아 놓은 그릇, 16절 도화지, 빨대 25개 이상(유아 수만큼), 사용한 빨대 버릴 통, 색연필, 스폰지 또는 걸레, 물감, 작업순서도

<활동방법>

- * 유아들과 함께 준비된 재료와 작업 순서도를 살펴보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 재료 사용(비눗물, 빨대)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 빨대는 새것을 쓰고 다 쓴 빨대는 버리는 통에 넣는다.
- 불기와 들이쉬는(마시는) 것의 차이를 알아본다. 즉 숨을 내쉬는 것을 실제로 연습해 보고, 숨을 들이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게 한다(비눗물을 마시게 되어 건강에 좋지 않다).
- * 종이에 이름을 쓴다.
- * 유아는 원하는 색과 모양의 물감통을 선택한다.
- * 비누물감을 빨대로 붙여 거품을 컵 위로 부풀어 오르면 종이를 살며시 덮어서 찍는다.
- 다양한 모양과 색을 골고루 찍어 구성해 보도록 격려한다.
- 다 찍은 후 빨대는 다른 유아가 사용하지 않도록 버리는 통에 넣는다.
- * 유아가 완성된 형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야기하면 교사는 이야기를 적어 준다.
- * 용기 밖으로 비누 거품이 넘쳤으면 유아 스스로 걸레나 스폰지로 닦는다.
- * 다 찍은 작품은 건조대에 말린다.

유의점

- * 빨대를 물감통에 집어넣고 숨을 들이마시지 않도록 한다.
- * 쓰고 난 빨대는 모으는 통에 반드시 넣도록 한다.

<기타>

- * 다 마른 비누거품 그림은 바깥선에 유성 매직, 사인펜 등으로 선을 그리고 오려서 거품을 부는 아이 그림과 함께 전시할 수 있다.
- * 비누거품 그림은 그릇의 모양과 비슷하게 찍히므로 그릇의 크기와 모양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 투명용기이면 더욱 좋다.

- * 비누 거품은 식기세척용 세제를 사용할 수 있다.
- * 도화지 대신에 달력 종이 등 면이 매끈매끈한 것을 사용하여 종이의 질감에 따른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 * 빨대의 굵기가 다른 것을 2-3종류 준비하면 굵기에 따른 거품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 5세

준비물: 다양한 재질의 종이(도화지, 달력종이, 창호지, 갱지, 복사지 등), 그림물감, 액체비누, 빨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용기

<활동방법>

- *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용기에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을 탄다.
- * 물감에 비눗방울이 생길 정도로 액체비누를 탄다.
- * 비누가 섞인 물감에 빨대를 꽂고 비눗방울이 생기도록 분다.
- * 컵 위로 올라온 비눗방울 위에 도화지를 살짝 올려놓아 물감을 묻힌다.
- * 색깔이 겹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색깔의 물감을 볼 때는, 물감이 섞이지 않도록 빨대를 찌도록 한다.

<유의점>

- * 빨대로 거품을 낼 때 비눗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유아의 수만큼 빨대를 준비해주어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안 쓰도록 한다.
- * 다 쓴 빨대는 깨끗이 물에 씻어 말린 후 구성이나 잘라 쓰는 작업에 활용한다.

<기타>

- * 종이의 재질에 따라 거품이 찍히는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
- * 여러 유아의 것을 같은 종이에 찍어 공동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 * 비누 거품의 모양대로 도화지를 오린 후 비누 거품이 하늘을 둥둥 떠다니거나 파도에 거품이 부서지는 느낌이 나도록 활동실 벽에 전시할 수 있다.

5. 굴리기

1) 3세: 공굴리기

준비물: 타월이나 털실로 감은 여러 크기의 공(지름 2cm, 3.5cm), 모양틀, 모양종이, 물감그릇, 물감, 집게, 건조대

<활동방법 및 전시방법>

- * 모양틀과 모양종이를 선택하여 틀 안에 종이를 넣는다.
- * 물감 그릇에 담겨 있는 공을 집게로 집어 모양틀에 넣는다.
- * 모양틀을 움직여 공을 굴려 그림을 그려본다.
- * 완성된 모양틀에서 꺼내 건조대에 건조시킨다.
- 종이를 적절히 붙이되 모양을 구성해 넓은 벽면에 붙여 주면 더욱 흥미롭다.

<유의점>

- * 집게 손잡이 부분에 물감색과 동일한 색의 색종이 띠를 둘러 주어 유아들이 집게를 상요한 후, 물감그릇에 잘 분류해 놓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타>

- * 색깔이 다른 공을 차례대로 모양틀에 넣어 굴려 봄으로써 색이 섞이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유아가 관찰해 볼 수 있다.

공 대신 구슬을 사용하여 굴려 보아도 재미있다.

- * 여러 모양의 틀과 모양종이를 준비해 주어 다양한 경험을 해 볼수 있게 한다(예: 육각형, 팔각형...)

2) 4세: 구슬 굴리기

준비물: 계란 모양 종이(노란색, 흰색), 구멍이 뚫린 색구슬(다양한 크기로 준비), 물감(약 세가지 색), 물감의 색을 표시한 얼음집게, 깊이가 있는 쟁반이나 상자, 걸레

<준비>

- * 구슬을 담은 물감통은 물감이 쏟아지지 않게 상자에 홈을 파서 고정시켜 준다.
- * 구슬은 색깔별로 물감통에 넣어 준비한다.

<활동방법>

- * 달걀모양 종이에 이름을 쓴다.
- * 달걀모양 종이를 쟁반(또는 상자) 안에 넣는다.
- * 종이 위에 원하는 색구슬을 얼음집게로 집어 올려 놓는다.
- * 쟁반을 이리저리 기울이면 구슬이 굴러 그 자국이 종이 위에 남아 빨대로 분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 * 다 그려진 그림은 건조대에 말린다.

<전시방법>

- * 모아진 달걀 그림은 바구니에 보기 좋게 듬뿍 담은 모습으로 벽면에 구성한다. 바구니는 입체감이 나도록 휴지말이 속을 길이로 길게 반을 잘라 지그재그로 붙여서 대바구니 느낌이 나게 할 수 있다.

<유의점>

- * 구슬과 색과 물감의 색을 같게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분홍색 구슬은 분홍색 물감통에, 연두색 구슬은 연두색 물감통에, 파란색 구슬은 파란색 물감통에 모아 놓는다.

<기타>

- * 부활절 즈음에 할 수 있다.
- * 계란 모양 이외의 다른 모양 종이를 준비해 줄 수 있다.

양해의 말씀: 실제활동의 작업그림을 삽입하려 했으나 원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 몇 가지만 삽입을 하는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네 아이들

농촌 아이들

이미자 / 전북 부안 마포 어린이집

“이마에 땀방울 송알송알 / 손에는 때국이 반질반질
맨발에 흙먼지 울긋불긋 / 봄벌레 그을려 까무잡잡
멍멍이가 보고 영아야 하겠네 / 까마귀가 보고 아찌야 하겠네”
'개구장이 산복이'란 이 노래가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겐 너무 잘 어울린다.

12년전 처녀의 몸으로 농촌에서 처음 아이들을 돌보면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깔끔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면서 엄마들의 무성의함을 탓했었다. 도시와 너무나 다른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였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시골을 전혀 모르던 나는 농촌 아이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남편도 알게 되고 농사일도 배우고 아이를 셋 가진 엄마가 되고 농촌 아이들과의 인연은 끈질기게 이어져 지금 마포 어린이집에서 일을 보고 있다.

우리 동네는 미취학 아동이 3명 뿐이다. 이웃 마을도 아이들이 4명뿐이다. 동네동네마다 똑같은 형편이다. 왜 동네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안들리는가? 우린 모두 알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란걸....

국민학교도 자꾸 폐교되고 있다. 얼마나 농촌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지는 정부나 T.V에서 떠들어대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하나를 보면 얼마디 말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을 죽인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농촌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농정 정책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지만 어쩔 수 없이 짐보따리를 챙겨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힘들기만 한 농촌으로 누가 들어오겠는가?

농촌 살기 어렵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리는 현실에서 우리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라도 희망을 주는 정부의 정책을 요구한다.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에게라도....

그 하나로 농촌에도 보육시설을 육성하고 농촌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도시지역은 지택연에 소속돼 있는 탁아소들이 오랜 기간 활동을 하면서 빈민지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뜻있는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받을 수 있는 걸 보면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럽다.

이농 현상으로 도시로 몰려간 노동자들의 아이들만 방치돼 있는 게 아니다. 도시로 나가지도 못하고 흙을 움켜쥐고 몸부림치는 농민들의 아이들도 심각하게 방치돼 있다. 노동력은 노령화되고 일할 사람은 없고, 일손 하나라도 아쉬운 형편에 엄마들은 아이들 보육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엄마, 아빠 따라 논, 밭에 가거나 빈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은 경운기 사고, 농약사고, 교통사고, 농수로에 빠지는 일 등 이 위험스럽고 풀독, 뱀 등도 위험스럽다. 적은 수지만 이렇게 방치돼 있는 아이들을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70년대 정부에서 농촌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농촌 일손을 덜어준다고 마을회관 등을 빌려 농번기 계절 탁아소라는 이름 아래 봄, 가을로 월 10만원과 약간의 장난감을 지원했다. 이 정책은 새마을사업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됐으나 점차 줄어 들었다. 1990년에는 정부에서 매년 한개의 탁아소를 지원하기로 하다가 1992년부터 공식적으로 중지했다.

우리도 정부에서 하는 교육도 받고 돈도 받았었는데 중지됐다. 가시적이 아닌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정부정책이 아쉽다. 지금 새로나온 보육지침서를 보거나 탁아소설치 지원 용자건을 보면 도시로 편중된 정책으로 농촌 실정과 는 거리가 멀다. 정부에서 아예 농촌은 버린 자식 같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에 어린 자녀를 둔 여성농민들의 고민과 활동 등으로 농촌에 탁아소가 하나 둘 생기고 있다. 부안에 있는 마포와 돈지도 뜻있는 여성 농민 활동가들과 농민들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농촌에서는 여러 개 마을을 함께 해야 하니까 필수적으로 차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농촌실정에 부모에게 보육비를 전부 부담시킬 수도 없으니 운영비는 너무 적고 차 구입은 생각도 못하고 애꿎은 남편만 들볶아 차를 굴리고 있는 실정이다. 마포와 돈지 탁아소는 물론 농촌에 있는 탁아소들은 선생님들의 피와 땀과 주민들의 협조, 외부지원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마포와 같은 경우는 10개 마을 아이들 23명을 교사 2인이 돌보고 있다. 아이들은 많은데 운영비와 교사확보를 못해 올해도 10여명의 아이들 원서를 받지 못했4다.

농촌 아이들에게 조기교육 이전에 또래 집단과 어울려 놀 수 있게 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도시 탁아와 함께 농촌 탁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

■ 시사말뚝이

반세기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첫발

편집부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열게 된 정상회담.

변화의 시대를 예고하기 보름을 앞두고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북한 핵사찰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던 정세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는 듯 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예고하고 민족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주는 의미는 매우 컸으며 그 기대 또한 자못 컸다. 이런 상황에 김 주석의 사망이 곧 정상회담의 결렬로 보아져선 안될 것이다. 물론 김 주석이 갖는 자리가 워낙 커서 이같은 생각을 갖을 수 있었겠지만 이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자리가 사라져 버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에 그동안 준비해왔던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체제를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냉철하게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아마도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므로 차분하고도 이성적인 태도로 지켜보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요즘 '조문단 파견' 문제로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희석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문단 파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의 원들의 발언에 '조문 거론자'에 대한 원색적 비방을 서슴치 않는 언어적 폭력을 하는가 하면, 객관적 보도를 해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은 한술 더 떠서 호들갑을 떨고 있어 그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단순한 애도와 의례적인 조의 표시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야단체와 학생운동권의 김 주석 조문은 국법문란의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이같은 방침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의적 잣대로 휘두르고 재는 이런 처사로,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상호비방'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정확히 재려한다면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수칙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김주석을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여겨왔던 서방 7개국의 정상들은 김 주석의 서거에 애도를 표시하고 있다. 하물며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도 "미국 국민을 대표해 북한과 북한 주민에게 김주석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북한이 받아 들여진다면 조문 사절단도 보내겠다고 발표하는 마당에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분단의 골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우리로선 좀더 아량있는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없었던건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조문의 의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일정집단을 매도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웅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경박한 판단과 언동으로 이 회담이 무산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좀 냉정해지자.

조문단 파견으로 빚어진 유치한 열기를 좀 식히고 진정 우리 민족의 조감도를 그려내는 첫발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새겨 볼 때이다.

또한 어떻게 나오나 두고 보겠다는 수동적인 관망자세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북한과 그 지도부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정부는 해묵은 이념에서 벗어나 하루 속히 북한지도부가 평화적 민족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도록 도와야 하며, 그런 바탕위에서 북한과의 대화 일정을 명백히 제시하는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포용성을 보여야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7천만 동포의 반세기 가까운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첫발이기 때문이다.



■ 건강하게 삽시다

갑작스런 발열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흥진 / 한림대 부속 춘천성심병원
소아과 전문의

평소에 건강하던 아이의 갑작스런 발열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탁아소의 부모들에게 있어서나 모두 당혹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열이라고 함은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측정하였을 때 섭시 37도가 넘는 것을 의미하며, 고열이라고 함은 섭시 38.5도가 넘는 것을 의미한다. 섭시 38.5도가 넘는 고열이 지속되면 열성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좋지 않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아이들에 있어서 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매우 많다. 대부분의 유소아기의 질환들이 고열을 동반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따라서 고열이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근본적인 원인 질환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치료를 시행함이 원칙이다.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서 열이 날 수 있는 경우와 그 대책이다.

외래를 볼 때 열이 난다고 외래를 찾아오는 1세 미만의 영아의 상당수는 주변 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육아법이랄까 할머니들은 흔히 신생아와 산모는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방을 덮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도에 지나치게 환경을 덮게 하는 경우 아이들이 보채고 열이 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열이 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시원하게 해주면 아이도 편안해지고 열도 내리게 된다.

또 한가지 열이 날 수 있는 경우는 탈수 때문에 오는 열이다. 위의 경우처럼 주변 환경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분유를 적정한 농도보다 진하게 타서 수분이 부족하여 탈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질병의 상태로는 설사나 구토가 심하거나 먹지 못하여 탈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 탈수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에는 탈수를 교정해주면 열이 내리고 아이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 병원에

가지 않고 탈수를 교정해주고자 하면 맹물보다는 이온 음료들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고열이 지속되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좋지 않은 반응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얼음물 또는 찬물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이다. 옷을 벗기고 찬물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데 머리에 수건을 얹어 놓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고열이 날 때는 대개 환자들이 추워하고 몸을 떠는 반응이 동반되며 추워하는데 얼음물 또는 찬물수건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처사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추워하는 것은 더욱 열을 높이려는 반응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몸을 식혀 주어야 한다. 해열제를 쓰는 것은 질병의 상태를 감출 수 있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경과를 파악하기 힘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환자 상태의 파악이 안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질병의 상태 중 고열을 동반할 수 있는 흔한 질환들로는 여러가지 종류의 상기도 감염(감기)들, 부비동염 또는 폐염들, 설사를 동반 할 수 있는 여러종류의 장염들이 가장 흔한 질환들이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참새방앗간”의 원고를 공모합니다.

‘우리네 아이들’편집부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돋보이는 소식지를 만들고자 “참새방앗간”이라는 독자란을 만들었습니다. 매월 정해진 주제에 맞게 원고를 써서 편집부로 보내주시면 선정된 원고를 ‘참새방앗간’에 게재,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8,9월의 주제는 “한가위”입니다.

대상: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시는 모든 분들
원고분량: 원고지 4-5매 정도
원고마감일: 9월 4일까지
원고를 보내주실 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글마당

♣ 탁아소별곡

세쌍둥이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이야기 하나

명집이가 누워 있었다.
주연이가 그 위에 올라 앉더니 '사랑해, 좋아해' 하고 껴안아 주었다.
그랬더니 명집이가 주연이한테 '오뎅 가자, 오뎅 가자...'하고 손을 잡아 끌었다.
"뭐?!" 놀란 감자선생님이 물었다.
"명집아 오뎅이 뭐니? 웡? 오뎅이 뭐야?"
가만히 있는 명집이????...(물론 명집이는 오뎅이 뭔지 모른다)
주연이가 방바닥에 앉아 있다가 명집이를 쳐다보며 하는 말 "무서워, 무서워...."

** 그러니 아이들 앞에서는 딱조신 하세요 **

이야기 둘

주연이가 걸어가다가 고개를 꺾 돌리면서
"누구야? 누구야?"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놀란 다람쥐 선생님, "주연아. 너 왜 그러니?"하고 다정스럽게 물었다.
주연이 왈, "선생님 귀안에 누가 있어요!!!"

이야기 셋

다람쥐 선생님이 출근하는데 용철이(일명 용팔이)가 신나게 뛰어와서 물었다.
"그런데 선생님, 선생님은 왜 고추가 없어요?"
"응, 선생님은 여자라서 고추가 없어요."
아이들이 물려들었다.
선욱이가 용철이를 보며, "우리 아빠 고추는 이만하다."
옆에 있던 준영이 팔을 크게 벌려 "우리 아빠 고추는 이...마안하다."
그것을 쳐다보던 용철이, "우리 아빠 고추는 더 크다."
모두들,???

♣ 우리들의 목소리

올망졸망의 여름나기

정순옥 / 올망졸망 어린이집

"으아-앙."

오늘도 어김없이 올망졸망 계단을 오르는데 들리는 아이들의 인사이다. 한 선생님은 점심을 준비하느라 볼 옆에서 비지땀을 뻘뻘 흘리고, 다른 이모는 잠 투정하는 아이를 달래며 재우고 있고, 나머지 한 선생님은 먹기 싫어 반항(?) 하는 애에게 약을 먹이고 있다.

아주 바쁠 때는 한 이모가 혼자서 람보가 된다. 덩이며 양팔에 포동포동 살이 찐 건강한 세명의 아이를 거뜬하게 (!) 안을 때도 있다.

지난 4월 예전의 웅기종기처럼, 수원 여성회와 또한 도와주는 많은 분들과 함께 올망졸망은 첫 출발을 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경험이라곤 지난 해 매주 토요일에 웅기종기 유아들과 놀아준 것과 올망졸망 시작에 앞서 너무나 무서워서(?) 구로 새터어린이집에 1주일 자활나간 것 뿐인데..

무엇보다 그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애플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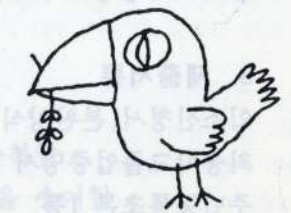
유아들과는 다른 영아만의 특성이 힘들긴 하지만 새터에서 안은 커다란 경험과 매월 있는 영아탁아 교사모임이 우리 어린이집의 큰 힘이다.

또한 아이에 있어서는 산 경험자이자 연구자이며, 아이 엄마이자 교사인 효순

이모, 정희이모. 웅기종기의 경력교사 기원이모. 이렇게 빵빵한 교사진과 먹을 것이라면 앞 뒤가 없는 천진스럽고 귀여운 아이들. 또한 우리 아이가 너무 울어서 선생님을 힘들게 하진 않을까 걱정하며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자상한 엄마, 아빠가 있기에 조금이나마 시원하다. 아직 부모회의가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 하나가 우리들의 성과이다.

장마와 계속되는 가마솥 더위로 마냥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보며 대책이 없는 이모들..

하지만 기우제와 함께 우리 모두에게 힘을 달라고 하느님(!)께 빌며 오늘도 쓰레기봉투를 여미며 올망졸망 계단을 내려온다.



■ 탁아계 풍향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여름 교사수련회

일시: 94년 8월 1~2일(1박 2일)

장소: 대전 동학산장(동학사 입구)

회비: 25,000원

준비물: 필기도구, 세면도구, 개인물품, 등산배낭, 큰 붓(기념티 제작), 모자.

'94 하계유아교사 실시 연수회

일시: 8월 4일(목) - 5일(금)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장소: 전주 덕진실내체육관

문의: 76-9393(한국유아교육개발원)

75-8123

강습회비: 36,000원

주최: 한국유아교육개발원

경기 수원 보육교사 양성과정 모집

1. 모집안내

과 정	교육기간	모집인원	비 고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6개월(925시간)	100명	1994.9월 초 개강

2. 입학자격

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면접전형

3. 제출서류

입소신청서(본원양식)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사진 4매(반명합판)

4. 특전

양성교육과정 수료후 수료증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받음

39인 이하 어린이집, 놀이방 직영(원장)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의 보육교사로 활동

5.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양성교육과정 (1994.7.1~) 선착순 마감

6. 문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삼진빌딩 4층(팔달구청 앞)

경기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원(0331)35-2290, 2291

몬테소리 전문교육 몬테소리 지도자 과정

1. 모집내용

구분과정	내용		
입학대상	* 전문대 대학졸업자 및 대학생 * 특별히 언어영역 교구 제작을 원하시는 분 * 유치원, 선교원, 어린이집, 놀이방 교사 및 원장 * 보육교사, 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동등이상자		
교육기간	6개월(전공반)	3개월(언어영역교구제작)	
교육시간	월요일반	토요일반	월요일반
	11:00 - 17:00	10:00 - 16:00 16:00 - 22:00	18:30 - 21:00
모집인원	각반 30명		

2. 개강

1994.9.3. 오후 4:00

3. 접수마감

1994년 8월 27일 접수순

4. 특전

(1) 언어영역은 교구제작함

(2) 성적 우수자는 수료후 일본 몬테소리교사 양성센터에 추천함

(3) 규정에 의한 몬테소리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CBS수료증을 수여함

(4) 외국인 시험관이 내방하여 실기고사 실시함

- (5) 재학중 일본 몬테소리 유치원 실습(6박 7일 예정)
- (6) M유치원, M선교원, M어린이집(놀이방) 운영지도 및 취업추천

5. 상담전화

기독교방송 강남문화센터 (542-9501~2, 547-5447~8)

<연합회 7월 구비도서 및 자료목록>

월간유아 7월호 / 한국유아교육원
 월간유아 8월호 교육계획안 / 한국유아교육원
 동화 읽는 어른 26호 / 어린이도서연구회
 마음을 살피우는 글읽기 74호 / 어린이도서연구회
 함께걸음 94.7월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부모신문 94.7.5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귀가 예쁜 여자 / 박금자 산부인과
 여성정치 21호 / (사)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문화생활신문 94.6.22
 노동자신문 94.7.8일자, 7.1일자, 7.22일자, 7월 26일자
 서울시민신문 94.7.6일자, 7.20일자 / 서울특별시
 시민체육 94.6월호 / 서울특별시 체육회
 노동과 건강 30호 / 노동과 건강 연구회
 월간 말 94.8월호 / (주)월간 말
 전북여성 94.7월호 / 전북여성운동연합
 전북여성의 전화 94.7.11 / 전북여성의 전화
 동사연가죽신문 94.6.29 / 전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주간 양천신문 94.7.21
 기독교청년의료인회보 94.여름호 / 기독교청년의료인회
 한국여성신학 18호 /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가정상담 94.6월호 /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아현동 아이들 94.6월호 / 소망탁아방
 제주여성 27호 / 제주여민회

그럼에도 해송아기동지, 몬누리탁아방, 햇살놀이방, 꾸러기동산에서 협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한진중팔사에서 「악거스틱 오리(마저리 풍력 금, 그집)」, 사랑마루 창간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국민연금 용자건 설명회 개최

'보육시설 장기용자(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7월 7일(목) 오후 3시에 송실대 사회봉사관 백마당에서 120여명의 인원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설명회에는 한상진 보사부 사무관과 신천수 평화은행 용자부 대리가 참석하여 용자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각 지역 민간보육시설연합회측, 개인보육시설관계자의 순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구로구, 성동구, 영등포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이하 '민보련'), 부천 민보련(준), 안산시, 인천시, 대전시 민보련, 광주시 놀이방협회 등 각 지역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주최와 지탁연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시기적절하게 마련되어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제3회 교육강좌, <신나는 미술활동> 성황리에 마쳐

제3회 교육강좌 <신나는 미술활동>이 40명 안팎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쳐졌다. 교육강좌는 6월 25일과 7월 9일 이틀에 걸쳐 경동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미술교육입문과 아동미술발달에 관한 이해와 유아미술의 특징, 조형활동,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분석과 대안, 현장사례발표 및 실기로 이루어졌으며, 교사들의 열의가 돋보이는 강좌였다.

사후작업으로 미술교육에 관한 교사소모임을 조직할 예정이며, 참가희망자는 사무국 교육부장(오윤정)에게 신청하면 된다.



- '94 여름 자활가 전체 합숙 열려

7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자원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있었다.

지난 7월 18~19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군 서정리에서 마련된 전체자활가 합숙은 매년 체육대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합숙의 형식으로 마련되어 비록 19명이라는 5단위의 적은 인원이 참석하였지만, 자원활동에 대한 대단한 열기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합숙에서는 각 학교의 자원활동가가 직접 준비한 아동행동의 이해와 아동실기교육(미술, 음률, 신체활동)과 자원활동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한편 자원활동가 연대회의에서는 8월 16일 오



전 11시에 상반기 평가와 아울러 하반기 계획을 논할 예정이다.

- 세쌍둥이 제 2회 열린강좌 개최

열린강좌는 부모회의시 실시하는 부모교육의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확대하여 아동보육을 의회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운동의 일환으로 94년 3월 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3강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회 열린강좌는 세쌍둥이 4주기 추모제 행사 중의 하나로 3월 19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보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김미령선생님이 강의하셨고, '아동의 질병과 약물남용'에 대해서는 김내과 김정아원장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2회 열린강좌는 7월 2일 서울대 소아정신과의사인 전성일 선생님의 강의로, 소아정신 건강 중에서 '자폐증'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과 보육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잘 끝마쳤습니다.

현재까지 2회의 열린강좌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강좌내용과 시기, 대상에 당나 구분이 필요하다는데 교사들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강의를 준비되는 대로 열린 강좌를 개최하겠으나 지탁연 소속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열린강좌의 자료와 2회 열린강좌의 비디오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제공: 세쌍둥이어린이집 032)887-0531)

- 봉천동에 영아전담탁아소 개원

"일하는 여성의 건강한 삶과 /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 지역사회와 주민사랑으로 꽃 피울 / 재롱둥이의 힘찬 탄생을 / 축하합니다!"

7월 1일 늦은 일곱시, 함께 외치는 개회식의 구호와 함께 영아탁아소 재롱둥이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봉천 5.9동과 3.6동의 지역활동가들, 봉천동 장기수 선생님들, 지탁연 사무국과 영아탁아소 교사들, 지역 자모, 자부들, 자원활동가 학생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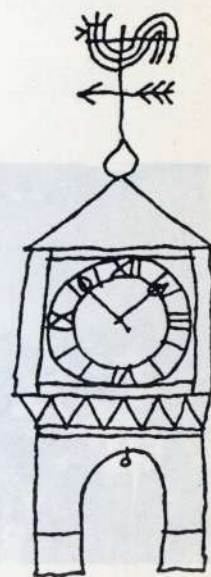


리고 재롱둥이를 도와주신 여러분드리 모인 가운데 재롱둥이가 지역속에서 풍서 강한 열매를 매3도록 함께 작은 씨앗을 뿌렸다.

이날 프로그램은, 모인 사람들간의 인사소개 및 축하의 말 나누기를 시작으로 재롱둥이의 준비과정 보고, 봉천동 애기방 아이들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네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건강한 삶과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방 생활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까지를 1부로 마치고, 참석자 전원이 재롱둥이의 복을 빌고 잡신을 물리치는 고사를 함께 지낸 뒤 고사음식을 나누며 뒷풀이에 들어갔다.

이제 재롱둥이는 지역속에서 굳건히 뿌리내리는 삶을 나누는 터전이 될 것이다.

(기사 제공: 재롱둥이 김연숙)



사람들

* 개원하셨습니다.

본 회 사무국장으로 수고하시던 이경희씨가 7월 1일자로 당진에 놀이방을 개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연락 바랍니다.

주소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656번지 2층 '푸른하늘놀이방'

전화 : 0457) 355-0959

* 인원선출을 축하합니다.

인천지역 대표를 맡아 1년간 수고하시던 전선경(무지개)씨가 인천 민보련 총무로 위임됨에 따라 새로이 조영숙(무지개)씨가 인천지역의 살림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활기찬 모습과 활동 기대합니다.

* 환영합니다.

북부지역 햇살어린이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수영(26)씨를 소개합니다. 이미 결혼은 하셨구요, 지난 2월부터 새로 오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사 소개를 드립니다.

참, 구로지역 온누리탁아방에도 이경주씨가 5월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새로이 활동하시느라 더운 날씨에 비지땀 흘리실 두분께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짹짹...

연합회 7월 일지

- 7월 2일 교육연구부 모임
조직발전특별위원회
- 5일 수련회 준비팀 답사
일본 방문팀 사전준비모임
- 7일 국민연금기금 장기용자 계획에 대한 설명회
- 9일 제3회 교육강좌 <신나는 미술활동>
- 11일 여연 정사위
- 12일 지방지역대표자회의
- 13일 자활합숙 준비모임
- 14일 교육연구부
수련회 준비팀
- 16일 영아탁아교사 모임
- 18-19일 자활전체합숙
- 19일 서울경인 아동분과
- 20일 지자체 과제개발 실무자 워크숍
- 21일 서울경인지역 대표자회의
조직발전특별위원회
- 22일 편집회의
- 22-23일 정사위 합숙
- 24-30일 일본 방문
- 25일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등에 관한
간담회(보사부)
- 26일 통일관련 사업 강화 방안 모색 간담회

(여연)

■ 편집부에서

* 회를 거듭할수록 소식지를 기다리는 분들의 문의전화들이 조금씩 늘어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에 보답을 해야 할텐데 소식지는 자꾸만 늦게 나오고... 다음부터는 정말 일찍 내도록 할게요.

* 다음호는 연합회 수련회가 있는 관계로 8,9월 합본호로 나갑니다.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은 연합회 수련회가 있는 1,8월은 합본호로 발간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대신 알차고 신속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나타나겠습니다.

* '작은 기획 이어가기'에서 전래놀이를 연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호에는 정리를 맡으신 편집부원님의 사정으로 실지 못하였습니다. 연재에 대한 독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 '참새방앗간'은 접수된 원고가 없는 관계로 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는 '참새방앗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김현옥님, 김인실님, 최영애님, 한승배님, 이미숙님, 장기정님, 김덕자님, 김춘남님.

6개월 구독: 김금자님

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었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께서서는 온라인입

금후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위에 한 여름 잘 납시다.

-미양

* 뭐 그리 할 얘기가 많은지 아니면 미련이 많은건지
줄일려다 늘어버린 원고를
찌 먹어버릴 듯한 폭염 속에
독자는 이해해줄런지

.....

행당동 산 꼭대기

철탑 바람으로

미안함을 대신해도 될지.

- 혜민

* 어찌다 얼렁뚱땅 만들어버린 자식
놈같아 속이 개운치 못하다.
폭폭한 마음을 그저 내일만 바라보
며 달래야 하는건지...

- 미혜

* 너무 더워, 아무 생각도 안나...

- 희연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 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0,000원 1년 구독 20,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뒤편이: 정희연, 주혜민, 변미양, 황미혜

펴낸날: 1994년 7월 28일